

도시생활에 있어서 노점상의 행태특성에 관한 연구(Ⅱ)

A Study of the Stall Keepers' Behavior Characteristics in Urban Area(Ⅱ)

김 한 수*
Kim Han Su
양 민 화**
Yang Min Haw

Abstract

This characteristics of stall keepers depend on items they treat and their main customers as follows.

1) The stall keepers around residential areas and traditional markets treat necessities such as vegetables, fishes, fruits, etc. Their main customers are regularly visiting housewives. 2) The stall keepers around CBD, mainstreet and amusement areas mainly treat alcoholic beverages and micellenious goods. Their marker areas are relatively wide. 3) The stall keepers want their business to be socially accepted as legal. Residents do not want to see illegal stall keepers around their residence even though they are frequent users of the stall keepers.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국제환경은 냉전의 종식과 신질서의 구축에 힘입어 세계화·개방화의 물결속에 무국경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생활 문화도 상당히 변화되고 있다. 즉, 도시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편익시설 입지, 소음·악취와 같은 공해에 대한 관심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거생활에 매일 접하고·이용해야 할 상업시설 분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거지 시설보다 관심도가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주거지나 시장주변 등 도시의 여

* 정회원, 계명대 도시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계명대 도시공학과 강사

러곳에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며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노점상이다. 이러한 노점상의 행태특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이미 노점상의 개념, 일반적인 행태 그리고 속성별 특성 등을 개괄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참고 문헌4 참조). 그러나 노점상은 분포하는 장소에 따라 그 속성도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또한 불법 상행위인줄 알면서 계속해서 주거지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인의 의식도 노점상의 행태특성을 밝히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입지별 특성과 노점상인의 의식 조사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는 것을 이전 연구결과 말미에 기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점상의 행태특성을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단계로 노점상의 입지유형별 활동특성과 노점상인의 의식 등을 통해 주생활공간에서의 노점상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민의 생활공간인 주거지, 시장 등에 분포되어 있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취급품목, 판매형태, 시간대별 활동특성 그리고 노점상인의 의식을 중심으로 입지별 활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관찰조사는 1996년 8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의식조사는 1997년 3월 10일~20일에 조사자가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지역

구 분	대 상 지
시 장 주 변	관문시장, 동구시장, 봉덕시장, 중평시장, 팔달시장
아 파트 주 변	삼익뉴타운, 성서지구, 지산지구, 칠곡지구, 황금주공아파트
간 선 도 로 주 변	대구역, 북현오거리, 북비산네거리, 서부정류장
도 심 주 변	동성로일대
유 원 지 주 변	동촌유원지, 두류공원, 수성유원지

II. 노점상의 입지별 특성

입지별 특성을 취급품목, 판매형태, 시간대별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본다.

1. 입지별 취급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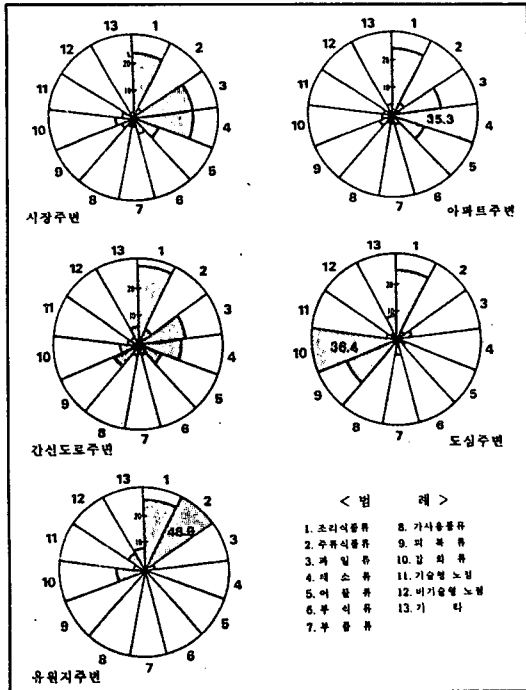
노점상의 취급품목별 특성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노점상이 입지하는 곳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주고객이 주부나 여성들인 주거지와 시장 주변의 노점상은 과일, 채소와 같은 신선품이 전체 취급품목의 7할 이상을 점하고 있는 반면, 남성고객의 이용도가 높은 내구성 물품류인 부품류와 서비스 노점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¹⁾. 이는 무질서한 상행위가 성행했던 과거 농촌지역의 재래시장 풍경과도 유사한 것으로,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나온 주부들의 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주변상가의 보완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 주변의 노점상도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이나 주거지 주변보다는 채소류, 어물류의 비중이 다소 낮으며, 주류와 피복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객의 유치권이 넓고 비고정적인 이용객을 대상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심의 노점상은 잡화류가 36.4%, 피복류가 20.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지 주변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과일, 어물, 채소류 노점상은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타 지역 특히 주거지와는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업무, 쇼핑, 여가활동이 주를 이루는 도심부의 토지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젊은이들의 구매충동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도 주류식품류 노점상의 비율이 낮은 것은, 앉아서 술을 마실만한 공간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잦은 단속과 기존 유흥음식점의 입지 등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입지별 취급품목 분석

그러나 행락인파가 많고 일정 면적 이상의 영업장 확보가 가능한 유원지 주변에서는 주류식품류와 조리식품류가 7할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처럼 조리식품류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곳을 찾는 어린이들을 위한 떡볶이, 핫도그 등의 노점상이 많은 것에서 기인한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노점상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점상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속성과 입지장소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노점상의 발생여하는 일정한 규칙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입지별 판매형태

노점상의 입지별 판매형태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시장 주변에는 물건의 운반이 용이하고 식품을 조리하기가 편리한 리어커 노점상이

28.3%로 가장 많으며, 영세 상인들이 투자비용과 무관하게 영업할 수 있는 깔판형, 진열대형의 순이며, 포장마차형은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곳 노점상들의 판매형태는 대부분 이동형과 반고정형으로, 이는 시장내에 가건물이나 포장마차를 세울만한 장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우더라도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인근 상인과의 마찰로 인해 일정장소에서 고정적으로 영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주거지 주변에는 깔판이나 상자형 노점상들이 밀집하여 있으며, 최근에는 아파트 담을 이용한 의류진열, 차량을 이용한 악세사리 판매, 좁은 인도를 송두리째 점유하는 도자기 판매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주거지 주변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또한 아파트 입구나 공원과 같은 근린시설 주변에는 트럭이나 리어커 노점상들이 많으며, 외곽 주거지 주변에는 영업 공간이 넓기 때문에 가건물과 포장마차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 오색 조명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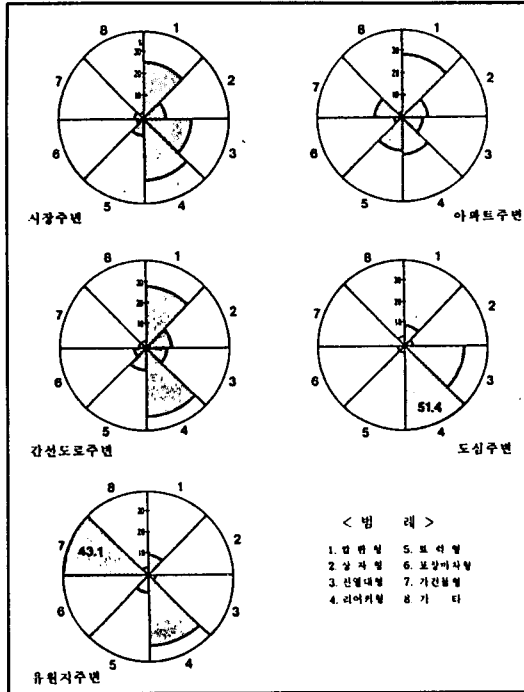
이와같이 주거지 입구까지 노점상이 영업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수요자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주거지 주변의 현수막 등에서 볼 수 있는 불법 노점상 철거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간선도로 주변에는 리어커나 깔판 등 이동이 편리한 노점상이 가건물이나 포장마차와 같은 고정형 노점상보다 성행하고 있다. 이처럼 이동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의 결절지인 간선도로 일대가 노점상들로 인해 교통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높아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트럭형은 리어커형보다 운반이 편리하고 단속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는 있으나 일정 공간을 차지하므로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 주변에서는 그 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도심에서는 노점상들이 고정되어 영업을

할 장소가 부족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영업하는 노점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리어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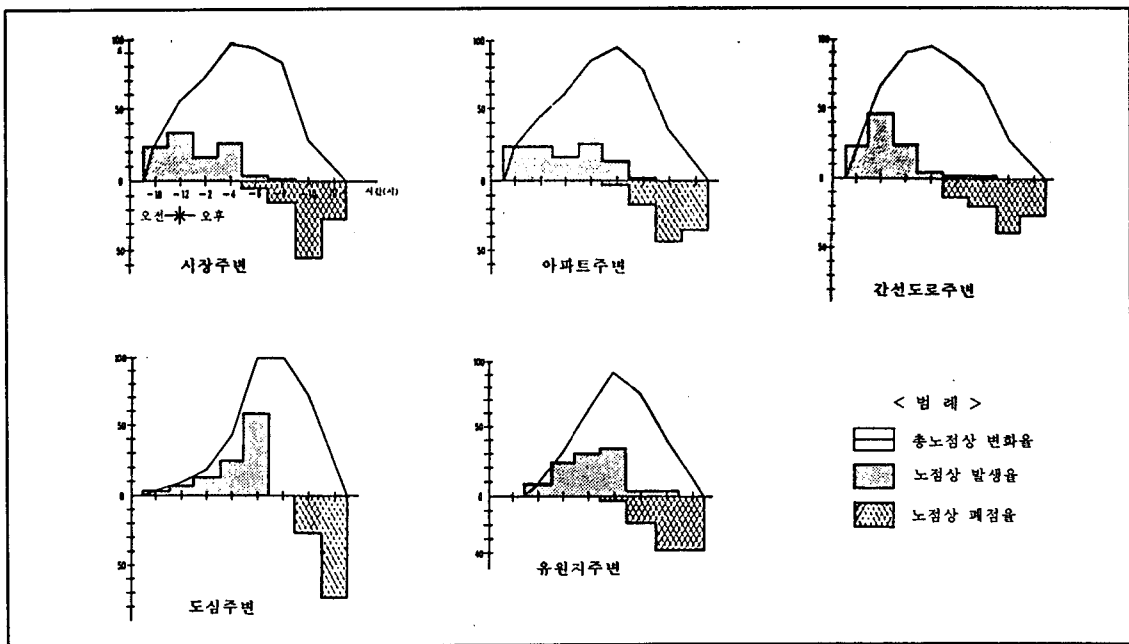
(그림 2) 입지별 판매형태 분석

형이 51.4%, 진열대형이 29.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건물형과 같은 고정형 노점상은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원지는 일정 면적의 영업장 확보가 가능하고 유흥지역이라는 지역 성격상 주류를 취급하는 포장마차의 입지여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포장마차나 가건물과 같은 고정형 노점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노점상의 시간대 변화

노점상의 시간대별 발생 및 폐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주거지와 시장 주변의 노점상은 오전부터 계속 그 수가 증가하다가 오후 8시이후 급속도로 감소하여, 약 70%의 노점상이 오후 10시 이전에 영업을 끝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류식품류 노점상들은 오후 6시 이후에 발생하여 심야까지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점군은 주부들의 저녁 식사 준비나 퇴근길 이용객의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입지별 노점상의 시간대 변화

간선도로 주변에는 영업을 할 만한 공간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장소 확보를 위해서 오전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도심과 유원지의 경우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오후시간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행락인파가 지속적으로 많은 도심이 유원지 보다 폐점시간이 늦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노점상의 시간대별 활동유형도 그들이 입지하는 지역의 특성, 이용객의 행동범주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노점상의 입지별 종합특성

각 입지별 노점상의 취급품목에 따른 이동성 여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림 4)2)이다.

주거지와 시장 주변에는 이동가능한 식품류와 농수산물류 노점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류식품류와 부품류 등은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가전물이나 포장마차 등의 고정된 노점상은 주거생활 환경과의 이질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많고 장소 또한 협소하므로 대부분 이동형 노점상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된 주거지 일대에는 고정형 노점상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간선도로 주변과 도심에는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장소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노점상이 교통혼잡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고정장소를 요하지 않는 이동형 노점상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유원지 주변에는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이동가능한 조리식품류와 포장마차와 같은 고정된 주류식품류 노점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입지별로 노점상의 취급품목에 따른 이동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것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위치, 소비자 속성이나 단속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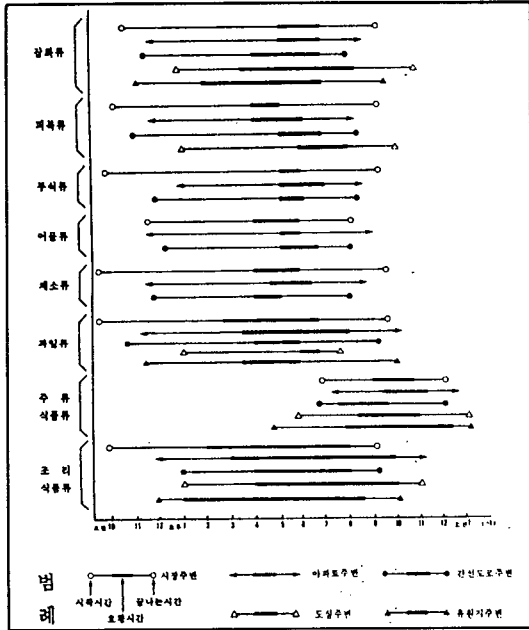
한편 주거지와 간선도로 주변의 노점상은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영업을 하며, 평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영업을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지 주변의 조리식품류와 과일류 노점상은 하루에 5시간 이상이나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 주변의 노점군 입지장소가 단순한 구매장소가 아니라 주민 상호간의 대화와 친교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도심과 유원지는 이용객이 오후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노점상들도 12시를 전후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타지역에 비해

구 분	시장주변			아파트주변			간선도로주변			도심			유원지주변		
	이	반	고	이	반	고	이	반	고	이	반	고	이	반	고
조리식품류	●	●	○	●	○	●	●	●	●	●	○	●	●	○	●
주류식품류	·	·	○	·	·	●	○	·	●	·	·	○	◎	·	●
과 일 류	●	●	○	◎	◎	●	◎	◎	·	●	·	·	○	○	·
채 소 류	●	◎	○	●	◎	·	●	○	·	·	·	·	·	·	·
어 물 류	●	◎	○	●	●	●	◎	●	·	○	·	·	·	·	·
부 식 류	●	●	·	○	○	○	○	·	·	·	·	·	·	·	·
부 품 류	○	·	·	·	·	·	○	·	·	●	○	·	·	·	·
가사용품류	○	○	·	·	·	·	○	·	·	·	·	·	·	·	·
피 복 류	●	○	·	●	○	·	◎	●	·	◎	◎	·	·	·	·
잡 화 류	●	○	·	○	·	·	◎	○	·	◎	◎	·	◎	·	·
기 술 형	○	·	○	·	·	○	○	·	○	○	·	·	○	·	·
비 기술형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범 례 >
 ● : 매우 우세
 ◎ : 우 세
 ◎ : 조금 우세
 ● : 조금 약함
 ○ : 약 함
 · : 매우 약함
 이 : 이 동 형
 반 : 반고정형
 고 : 고 정 형

(그림 4) 노점상의 취급품목과 판매형태의 관계

1일 영업시간은 비교적 짧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호황시간³⁾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유원지의 조리식품류 노점상은 하루에 9시간 이상, 도심의 잡화류 노점상은 6시간



(그림 5) 취급품목과 영업시간과의 관계
 이상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에서 노점 이용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Ⅲ. 노점상의 활동과 의식구조

여기서는 전술한 관찰조사를 바탕으로 노점상의 의식구조와 행태를 살펴보고자 289명의 노점상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해 본다. 응답에 응한 남녀 속성을 보면, 여성이 62.6%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 응답자의 성별 구성 단위:인

대상지	남자	여자
1. 시장 주변	20	55
2. 아파트 주변	26	56
3. 간선도로 주변	34	38
4. 도심 주변	22	18
5. 유원지 주변	6	14
합계	108	181

1. 노점상 시작동기

노점상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생계유지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점에 대한 대책은 한 가정의 생존권을 좌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세워져야 한다. 가족 구성원의 사망,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서가 36.0%,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타전문직이나 상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

〈표 3〉 노점상 시작동기

단위:인(%)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부정적	1. 본인의 실직·퇴직 등으로 인해	2 (7.1)	1 (3.6)	9 (14.1)	1 (1.2)	9 (9.3)	0 (0.0)	9 (13.8)	0 (0.0)	4 (11.4)	0 (0.0)	33 (11.4)	2 (0.7)
	2. 가족구성원의 사망, 실직, 퇴직 등으로 인해	2 (7.1)	3 (10.8)	2 (3.1)	14 (21.9)	0 (0.0)	26 (26.8)	0 (0.0)	15 (22.0)	0 (0.0)	7 (26.9)	4 (1.4)	65 (22.5)
	3.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6 (21.4)	1 (3.6)	11 (17.2)	3 (4.7)	18 (18.6)	6 (9.2)	5 (7.7)	5 (7.7)	5 (14.3)	2 (5.7)	42 (14.5)	17 (5.9)
	4. 생계유지를 위해	3 (10.8)	2 (7.1)	1 (1.2)	11 (17.2)	1 (1.0)	29 (29.8)	4 (6.2)	19 (29.2)	1 (2.8)	12 (34.3)	10 (3.5)	73 (25.3)
긍정적	5. 수입이 좋을 것 같아서	2 (7.1)	2 (7.1)	1 (1.2)	4 (6.3)	1 (1.0)	2 (2.0)	0 (0.0)	3 (4.6)	0 (0.0)	3 (8.6)	4 (1.4)	14 (4.8)
	6. 세금을 내지않아서	2 (7.1)	1 (3.6)	2 (3.1)	3 (4.7)	1 (1.0)	2 (2.0)	2 (3.0)	1 (1.5)	0 (0.0)	1 (2.8)	7 (2.4)	8 (2.8)
7. 기타	1 (3.6)	0 (0.0)	1 (1.2)	1 (1.6)	2 (2.1)	0 (0.0)	2 (3.0)	0 (0.0)	2 (5.7)	1 (2.8)	8 (2.8)	2 (0.7)	
합계	18 (64.3)	10 (35.7)	27 (42.2)	37 (57.8)	32 (33.0)	65 (67.0)	22 (33.8)	43 (66.2)	9 (25.7)	26 (74.3)	108 (37.4)	181 (62.6)	

문이 20.4%로 나타났다.

노점상 시작동기를 실직이나 자본·기술 부족 등의 부정적 동기와 수입이 좋아서나 세금을 내지 않아서 등의 긍정적 동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는 82.4%, 여자는 86.7%가 부정적 동기에서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젊은 층은 사회경험과 수입 면이라는 긍정적 동기에서, 30-50대의 중년 층은 부정적 동기에서, 60대 이상에서는 소일삼아 소량으로 영업을 한다는 긍정적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성별·연령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성은 사업실패나 실직, 퇴직 등으로 인하여, 여성은 저자본, 저기술로 영업에 참여하여 가족을 돌볼 수 있다는 것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점상이 공식부문⁴⁾에서 밀려난 노동력을 흡수하여 실업에 대해 완충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저자본가, 무 기술자, 기혼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공식 경제활동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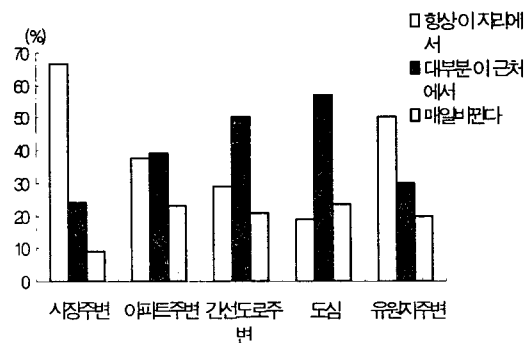
2. 입지선정 조건

각 지역별 입지 선정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장 주변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집중과 동일업종의 집적이익 때문이며, 주거지와 간선도로의 경우는 소비자의 편리한 접근성 때문이다. 도심과 유원지 주변에는 백화점이나 관공서, 유원지 등의 핵시설이 있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점상의 장소 이동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80.3%는 동일 장소에서 영업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9.7%만이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점상은 일반 상점과 달리 자유로이 입지를 이동할 수 있으나 단골확보나 일정 장소를 점유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한 장소에서 고정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노점상이 많다. 물론 일시적인 행사장의 노점상은 이동형이 많지만 시장이나 아파트 주변에는 점차 고정화

되어가고 있다.

주거지와 시장주변의 경우에는 시장입구나 횡단보도 옆 등 좋은 자리를 잡기위해 영업을 끝마칠때 리어커나 진열대 혹은 박스를 쌓아두어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주거환경 악화에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심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림 6) 장소의 이동성

3. 단속에 대한 의식

노점상이 입지하는 장소나 시간 및 활동특성에 따라 단속 실태와 그 대처방안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 주변에는 노점상들도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가지면서 상점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단속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파트 주변에는 80% 이상의 노점상이 단속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노점상들이 주거환경을 헤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므로 관공서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이나 관리실 등의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간선도로와 도심, 그리고 유원지 주변에는 수시로 단속 받는다고 응답한 노점상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속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잠시 피했다가 다시 영업한다'는 「일시도피형」이 53.3%로 가장 많았고, '단속반원과 적당히 타협한

후 다시 영업한다'는 「타협형」이 18.4%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단속후에도 영업을 계속한다는 노점상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일시적인 단속정책은 노점상을 지도·정비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노점상들이 생각하는 단속받는 이유를 살

〈표 4〉 단속에 대한 노점상의 의식 단위: %

구 분		1	2	3	4	5	전체
단속 시의 대처 방안	잠시 피했다가 영업	52.9	50.0	52.2	59.9	61.1	53.3
	적당히 타협후 영업	24.3	25.0	5.8	17.1	16.7	18.4
	자리를 옮겨서 영업	12.9	16.3	15.9	8.6	16.7	14.3
	그날 장사를 그만둠	5.7	5.0	5.8	2.9	5.5	5.2
	단속반원에게 항의	2.8	3.7	14.5	8.6	0.0	6.6
	기타	1.4	0.0	5.8	2.9	0.0	2.2
단속 받는 이유	교통에 지장을 줌	26.7	22.0	47.2	22.5	10.0	28.7
	비위생적이므로	5.3	3.7	8.4	2.5	10.0	5.5
	미관상 좋지 않아서	6.7	40.2	23.5	55.0	65.0	31.0
	상인에게 피해를 줌	41.3	10.9	2.8	2.5	0.0	14.9
	이유를 모름	13.3	17.1	12.5	10.0	10.0	13.5
	기타	6.7	6.1	5.6	7.5	5.0	6.3

* 구분의 1-5는 〈표 2〉와 동일

펴보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과 '교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 각각 31.1%, 28.7%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속받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노점상이 13.5%나 되어 자신들의 상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유발시키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노점상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식은 단속을 집행하는 행정당국과 노점상을 근절시켜려는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현재 주거환경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간선도로의 경우는 교통장애, 시장 주변의 경우는 인근상인과의 관계, 주거지나 유원지의 경우는 시각적인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4. 사회기여의식 및 희망사항

전술한 바와 같이 노점상은 나름대로는 사회적인 필요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생계유지의 차원에서는 당당하게 상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이처럼 노점상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기여도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저렴한 상품을 공급한다는 의식이 54.0%,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가 27.3%로 저렴한 가격과 구매의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시장이나 도심, 간선도로 주변의 노점상은 '저렴한 상품 공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파트 주변에는 접근의 편리성이 가격의 저렴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변에 상가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편의를 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반해 공원, 유원지 주변의 노점상은 '좋은 분위기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가 60.0%로 노점상이 입지하는 지역에 따라서 그들의 사회기여 의식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점상들의 희망사항을 보면, 그냥 묵인해달라는 요구가 70.9%로,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정부의 물질적인 도움 보다는 자유로운 상행위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점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직장을 구해달라거나 특별한 생활대책을 세워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기타로는 건의해봤자 정부에서 아무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용없다라는 노점상도 많아 정부에 대한 깊은 반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지역에 따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도심에서 활동하는 노점상이 가장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기여의식 및 희망사항 단위:%

구 분		1	2	3	4	5	전체
사회 기여 의식	저렴한 상품공급	64.0	43.9	58.3	67.5	15.0	54.0
	물건 구입이 편리	21.3	46.3	27.8	7.5	10.0	27.3
	희귀 상품 공급	2.7	3.8	11.1	10.0	10.0	6.6
	좋은 분위기 제공	4.0	2.4	0.0	5.0	60.0	6.6
	기여하는 바 없음	6.7	2.4	1.4	2.5	0.0	3.1
	기타	1.3	1.2	1.4	7.5	5.0	2.4
희망 사항	그냥 묵인해 달라	73.3	69.5	75.0	62.5	70.0	70.9
	시간, 장소지정	16.0	14.6	16.7	15.0	15.0	15.6
	다른 직장 요구	1.3	3.7	1.4	5.0	5.0	2.8
	생활대책 요구	5.3	7.3	4.2	5.0	5.0	5.5
	기타	4.1	4.9	2.7	12.5	5.0	5.2

* 구분의 1-5는 〈표 2〉와 동일

IV. 결 론

도시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들의 입지별 활동행태를 조사·분석함과 동시에 노점상인들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1) 시장주변 노점상은 주부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식품류나 농수산물류를 주로 판매하며, 인근 상가와 취급품목이나 영업시간, 가격에 있어서 차별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시간 영업을 하며,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장사가 잘되는 동일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향때문에 이동형보다는 고정형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주거지 주변에는 주민수요에 부합되는 상가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에 노점상이 많이 발생하며, 갈판이나 리어커를 이용하여 식품류와 채소류, 과일류를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반고정형의 형태로 인근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이용자 유치권은 시장형보다도 짧으나, 노점상의 이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역이나 터미널, 교차로 등 사람과 차량

의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 주변 노점상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자리에 고정하기 보다는 유동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도심의 경우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핵시설로 인해 발생한 형태로 평일보다는 통행인이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노점상이 많았다. 유원지 주변의 노점상은 유원지나 공원, 수변공간 등 행락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발생하는 형태로, 식품류나 잡화류 취급 노점상이 산발적으로 이동하면서 영업하고 있으며, 주류를 취급하는 포장마차형 노점상은 한곳에 고정하여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4) 노점상의 행태는 입지장소에 따라 발생시간과 폐점시간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환경에 부합하는 조건을 수용하고 있다.

5) 노점상 시작동기는 생계유지 차원이 지배적인 것에서 무조건적인 노점상 단속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이보다 이용자는 노점상을 이용하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노점상은 불법적인 행동이지만 그 정도를 짐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노점상에 대한 대책결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국제화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식구조나 상행위의 규범 측면에서 본다면 주거지역에서 주생활에 편익을 제공해 준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노점행위는 재고되어야 될 것이며, 주민이나 행정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본 연구는 노점상의 행태특성 규명 접근을 위해 지역적 특성과 노점상의 의식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하였지만 노점상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과 경영면에서 노점상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인근상인의 의식 및 이들을 지도 단속하는 행정당국의 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지금까지 분석한 현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장래 노점상의 개선방향과 종합대책 등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주

- 1) 참고문헌 4에서 취급품목별 노점상 분류를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업종 분류는 전술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 2) (그림 4)에서 나타내고 있는 범례의 범위는 입지별 취급품목과 판매형태와의 상호관계를 비울적으로 분류한 것임.
- 3) 본 연구에서 호황시간이라 함은 하루 중에서 영업이 가장 잘되는 시간대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재분석한 결과이다.
- 4) 참고문헌 6에 의하면 공식부문이란 합리화된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자본집약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제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므로 취업이 어렵다.
- 5) 참고문헌 6에 의하면 비공식부문이란 도시경제에 새로이 투입되는 사람들에게 생계유지를 가능케 하는 고용기회로써 주로

불완전고용, 실업에 대처하는 빈곤층이 참여하는 경제분야를 의미한다.

참 고 문 헌

1. 今野博, “まちつくりと歩行空間”, 마島出版會, 1990
2. 小林重敬編, “協議型まちつくり”, 學芸出版會, 1995
3. 김한수 역, “공간디자인의 원점”, 기문당, 1996
4. 김한수, 양민화, “도시생활에 있어서 노점상의 행태특성에 관한 연구(I)”,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 8권 2호, 1997
5. 김한수, “주택단지 내부의 상업시설 입지와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 10권 8호, 1994
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노점상의 실태와 대응 방안”, 1993
7. 이준수, “주거단지 주변의 노점상 입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87